

원통 파이프로 변주한 이승조의 추상미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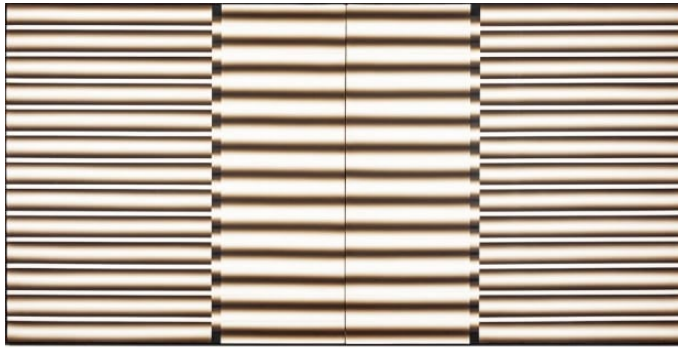
July 5, 2020 | 서화동 논설위원

Page 1 of 2

'파이프 화가' 이승조 30주기展 국립현대미술관서 온라인 개막

60년대 등장한 아방가르드 세대 한국 기하추상 회화 발전 이끌어

원통 이미지를 조형 언어로 제시 예술적 본질로 규정한 '核' 탐구
'핵 F-G 999'등 90여 점 선보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걸린 추상회화 작가 이승조의 1987년작 '핵(核) 87-99'.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거부설이 돌았다. 국전의 고질적인 담합 심사, '돌려먹기식' 수상자 선정 때문이었다. 추상화가 이승조(1941~1990·사진)의 작품 '핵(核)-F90'은 일부 심사위원이 대통령상감이라고 평했으나 3등에 해당하는 문공부장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 동대문여중 교사이던 이승조는 "상을 타기도 어렵지만 안 타는 것이 더 어렵다"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최고상은 놓쳤지만 추상회화의 입상이 드물던 보수적인 국전에서 그의 수상은 큰 화제였다. 더욱이 이승조는 이후 내리 4년 동안 문공부장관상 2회, 특선 2회를 받아 파란을 일으켰다. '파이프'를 연상시키는 원통 단위를 조형언어로 제시하고 국내 화단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궈낸 기계미학적 추상회화에 대한 평가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1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이승조: 도열하는 기둥'전은 한국 기하추상의 발전을 이끈 그의 30주기 회고전이다. 과천관에서 지난달 18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오다 온라인으로 먼저 선보였다. 작가가 1968년 이후 마흔아홉 살에 타계할 때까지 작업한 회화 작품 90여 점을 모았다.